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뉴스레터

Newsletter of the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2018년 12월호

- 홈페이지 : www.kmeea.com
- 메일주소 : kmeea@hanmail.net
- 학회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410
- 전화번호 : 02-880-7726

I 교과와 학회 발전을 위한 제언

정 창 우 (서울대학교, 본회 부회장)

우리 학회가 창립된 해인 1990년 이후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서른 살을 이립(而立)이라 칭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 학회는 지난 30여 년 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뜻과 방향을 세우고, 그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창립 이후 우리 학회는 도덕·윤리교육학을 근간으로 하여 초중고 도덕·윤리교육과 접점을 갖는 교과내용학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학문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또한 교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서서 안정을 되찾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 학회는 어떤 일에 열정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까?

미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인류가 전례 없는 혁명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전에도 미래를 결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전에 없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발 하라리는 “만약 누군가가 21세기 중반의 세계를 묘사한 것이 공상과학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거짓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미래 변화는 너무나 심대해서 삶의 기본 구조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토록 전례 없는 변혁과 뿌리 채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대비해 미래 세대에게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 학회와 교과는 어떤 역할 수행을 통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순항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3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의 질(quality)이 우리 시대 교육(특히 도덕·윤리교육)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1세기 미래역량에 대한 저서에서 파델 등(Fadel et al.)은 “잘 설계된 교육은 개인에게 더 큰 권한과 행복을, 사회에 더 많은 평화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성장과 공정함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특히 도덕·윤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만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협업을 촉진시켜 사회의 창의성과 생산력이 증진되며, 글로벌 차원에서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도덕·윤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만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타인의 의도, 행동, 감정을 이해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윤리적 시각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성찰하고 이를 개선 혹은 향상시켜 나가지 않게 되면 심각하게는 개인의 진정한 행복과 인류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

길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래의 삶의 질은 크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반추 및 성찰능력, 상황을 예견하고 응시하며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이 각자가 가진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실상 우리 교육의 과제이며, 특히 우리 교과와 학회의 과업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우리 학회와 교과에서는 도덕교육 연구와 교육 실천을 통해, 미래 세대가 불확실하고 급변하며 모호한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정신적인 나침반과 자신이 설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성품 및 도덕적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성품과 도덕적, 민주적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예의를 갖추고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윤리과교육학을 학문적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이를 실천·적용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에서 우수하고 영향력 있는 학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핵심 역량의 중심에 도덕적 역량이 놓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21세기가 요구하는 성품과 도덕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미래 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 이미 제기된 문제뿐 아니라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도덕적 동기와 참여 의지, 그리고 도덕적 책임감과 해결 능력을 지닌 사람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 평생 학습자로서 지속적인 도덕적 자기성장을 추구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 교과와 학회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우리 교과와 학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면서 21세기형 도덕·윤리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 접근법과 방법들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적용해 나간다면, 우리 학회와 교과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II

학회 동정

1. 동계학술대회 안내

오는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2동 401호, 501호에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도덕적·시민적 인성 역량,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주제로 합니다. 도덕적·시민적 인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위 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발표 및 내용	사회
13:30-14:00	등 록	
14: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박병춘(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회장, 전주교대) ◆ 격려사: 윤건영(청주교대 총장) ◆ 환영사: 정창우(서울대 교수, 인성교육연구센터장) ◆ 축사: 김병환(서울대 교수, 한국공자학회) 	이재호 (본회 총무이사, 광주교대)
14:20-14:50 [401호]	기조강연 발표주제: 기로에 선 도덕교육 발 표 자: 추병완(춘천교대,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14:50-15:00	이동	
15:00-16:10 [401호]	제1주제: 도덕적·시민적 인성 역량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을 위한 실존적 성숙 발표자: 황종환(한남대) 토론자: 추정완(목포대) ○ 어린이 철학을 통한 도덕적, 시민적 인성교육 함양 방안 연구 발표자: 박찬영(진주교대) 토론자: 박대호(한국교원대) 	황인표 (춘천교대)
16:10-16:20	휴 식	
16:20-17:30 [4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역량 함양을 위한 초학문적 융합 패러다임 제안: 실행 연구 기반 발표자: 김영은(평가원) 토론자: 이영문(춘천교대) ○ 도덕적 역량의 실용주의적 토대: 퍼스의 습관과 관련하여 발표자: 이청호(세종대) 토론자: 조주현(목포대) ○ 맹자의 군자론과 시민적 인성 교육 발표자: 황인석(서울대) 토론자: 이경무(춘천교대) 	

<p>15:00-16:10 [501호]</p>	<p>제2주제: 도덕적·시민적 인성 역량 교육을 위한 실천적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적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의사소통 역량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해진(망포중) 토론자: 김혜진(전주교대) ○ 도덕적·시민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KMDD(Konstanz Method of Dilemma Discussion)를 중심으로 발표자: 강민겸(신반포중) 토론자: 박균열(경상대) ○ 학교 기반 희망 개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스나이더의 희망 이론을 중심으로 발표자: 최윤정(천마초) 토론자: 김완수(이리부송초) 	
<p>16:10-16:20</p>	<p>휴 식</p>	<p>김형렬 (서울대)</p>
<p>16:20-17:30 [50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청소년의 도덕적·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한 통합형 도덕성 진단 도구 개발 및 적용 발표자: 박형빈(서울교대) 토론자: 차승주(통일부) ○ 고등학생의 인성과 정치 참여의 관계 분석: 자기표현의 가치와 학급 토론 개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손경원(서울대) 토론자: 이해경(서울대) ○ 교육공동체의 핵심 가치·역량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서울 C 여자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오유진(창덕여중), 김준구(창덕여중), 이은상(창덕여중) 토론자: 장유정(인천검단고) 	
<p>17:30-17:40</p>	<p>휴식</p>	
<p>17:40-18:10 [401호]</p>	<p>종 합 토 론</p>	<p>노희정 (광주교대)</p>
<p>18:10-18:20 [401호]</p>	<p>정기 총회</p>	<p>이재호 (분회 총무이사)</p>
<p>18:20-18:30 [401호]</p>	<p>감사보고</p>	
<p>18:30 [401호]</p>	<p>폐 회 식</p>	<p>박병춘 (분회 회장, 전주교대)</p>

* 만찬 장소: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외래향”(02-888-1224,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1)

2. 2017-2018 회장단 활동 및 성과

1) 홈페이지 개선

본 회장단에서는 2017년 4월 학회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회원님들의 학회 활동의 편의를 높이고 학회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기능, 학술지 원문 및 학술대회 자료집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논문 투고 양식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원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2) 뉴스레터 발행

본 회장단에서는 2017년 4월호를 시작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뉴스레터 재발행을 시작 하였습니다. 2017년 4월호, 8월호, 12월호, 2018년 4월호, 8월호, 12월호로 총 6편의 뉴스레터를 모든 회원님들께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학계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학회의 행사를 알릴뿐만 아니라, 출간 및 취임 소식, 학술 활동 안내 등을 통해 회원님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해드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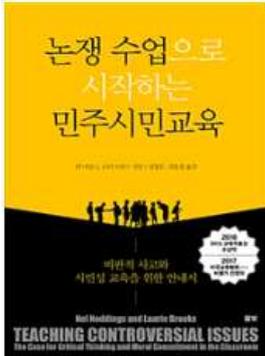
3)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 수혜

본 회장단에서는 두 차례의 한국연구재단 학회 지원 사업을 수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학술지 지원 사업을, 2018년에는 학술대회 개최 지원 사업을 수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연구재단에 보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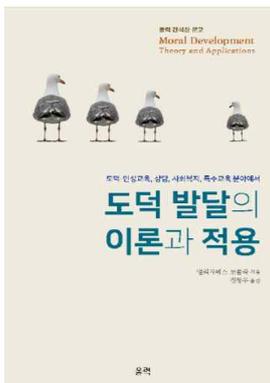
4)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의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은 2018년에 실시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좋은 논문을 투고해주시고, 학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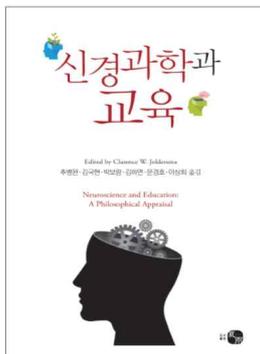
1. 출간 안내



○ 본 학회의 부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정창우 교수님과 김윤경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이 2018년 8월 22일에 풀빛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논쟁적인 쟁점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비판적 사고력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와 강력한 참여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가를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권위, 종교, 젠더, 인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빈곤, 정의, 애국심 등 다양한 논쟁적 쟁점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논쟁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학회의 부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정창우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도덕 발달의 이론과 적용』이 2018년 10월 20일에 울력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대 도덕 발달 영역이 의존하고 있는 고전 이론들뿐만 아니라 전통적 발달 교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최근 이론 및 그것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도덕 발달 이론의 외연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 발달론의 역사적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옳음과 그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대와 경험에 걸친 변화를 주요 이론가들의 주요 개념들을 통해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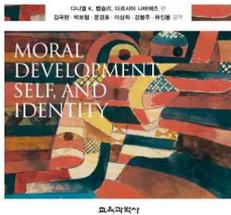


○ 본 학회의 전임 회장이신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추병완 교수님과 시민교육위원이신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김국현 교수님, 박보람, 김하연, 문경호, 이상희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신경과학과 교육』이 2018년 8월 하우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선도적인 교육철학자들이 신경과학과 교육의 교차점에서 철학적 분석을 시도합니다. 이 책은 신경과학과 교육의 상호연결에 관한 교육철학적인 해설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 본 학회의 전임 회장이신 한국교원대학교 박병기 교수님과 부회장이신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님, 시민교육위원이신 김국현 교수님,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선이 교수님과 김원명 교수님, 박보람 선생님, 광경화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대학생의 인성과 인성역량 함양』이 2018년 8월 30일에 교육과학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대학 인성교육이 타자의 고통에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공감 교육과, 다른 하나는 올바른 도덕 판단 능력을 기르는 도덕 판단력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블라지의 도덕심리학
도덕 발달, 자아, 정체성



○ 본 학회의 시민교육위원이신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김국현 교수님과 박보람, 문경호, 이상희, 강봉주, 하진봉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블라지의 도덕심리학: 도덕발달, 자아, 정체성』이 2018년 8월 25일 교육과학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블라지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랩슬리와 나바예즈 등 도덕심리학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이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에 대한 블라지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한편, 도덕성 발달에 관한 사회 윤리적인 연구 성과를 담은 비판적인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V

공지 사항

1. 학회비 안내

본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을 연 4회 구독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정산되오니, 연 초에 연회비를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연회비 : 일반 회원 3만원 / 이사 및 임원진 : 10만원
 - ※ 납부 계좌 : 농협 302-1154-0960-31, 예금주 : 박병춘(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 학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성함과 함께 소속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천중학교 홍길동 → 홍길동 봉천
-

납부 명단

- 특별회비 : 박동준(100만), 박병춘(100만), 박찬석(24만), 박병기(20만)
- 연회비 : 추정완(10만), 이인태(3만), 박형빈(10만), 고미숙(3만), 김병연(3만), 김혜진(3만), 김연숙(50만), 김흥태(3만), 김상돈(10만), 김태훈(10만), 이청호(6만), 이준경(3만), 김남준(10만), 고경희(3만), 김완수(3만), 신희정(3만), 이영문(10만), 김영은(3만), 이재호(10만), 송재범(10만), 신중섭(30만), 이경희(10만), 차승한(3만), 김의신(6만), 추병완(3만), 정창우(3만), 송선영(10만), 오석종(10만), 김재영(6만), 박홍석(3만), 최정철(3만), 강수정(3만), 박상욱(3만), 박병기(20만), 신원동(3만), 정대성(3만), 홍석영(10만), 심한식(15만), 이철주(5만), 이정렬(10만), 윤영돈(3만), 김윤경(3만), 신원애(6만), 우맹식(6만), 장유정(3만), 김상범(50만), 이용균(3만)
- 평생회원 : 김상범, 김연숙, 박균열, 박동준, 박병기, 서은숙, 신중섭, 이경희, 이인정, 정탁준, 최형찬
- 기관회원 : 전주교육대학교도서관(10만), 청주교육대학교도서관(10만)

※ 18. 12. 5. 기준
